

漢詩 解釋에 關한 考察

— 고등학교 한문교과서를 중심으로 —

崔 閔 鎔*

<目次>

- | | |
|--------------------|-----------------------|
| I. 序言 | III. 其他 解釋에 誤謬가 있는 漢詩 |
| II. 解釋에 差異를 보이는 漢詩 | IV. 結語 |

<국문 초록>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한시영역은 전체 영역의 10% 정도이며, 2종 이상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는 12편이다. 12편중에 번역에 타 교과서와 차이가 있거나, 해석에 오류가 있는 시는 鄭夢周의 「春」, 鄭知常의 「送人」, 申師任堂의 「踰大關嶺望親庭」, 李珣의 「花石亭」, 王維의 「送元二使安西」 등이다.

「春」은 結句의 시어 순서가 『圃隱集』에는 ‘多少草芽生’으로 수록되어 원전과 다르다. 「送人」의 해석은 起句의 ‘君’을 ‘임(님)’과 ‘벗’으로, 承句의 ‘動悲歌’의 풀이가 ‘슬픔에 북받쳐[動悲] 노래 부른다.[歌]’와 ‘슬픈 노래[悲歌]가 들려온다.[動]’ 등으로 나뉜다. 「踰大關嶺望親庭」은 結句 ‘暮山’을 ‘저무는 산’으로 해석한 교과서가 있다. ‘저물다’는 ‘해가 저서 어두워지다.’, ‘어떠한 일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늦어지다.’, ‘계절이 나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되다.’의 뜻일 때 쓰는 단어다. 따라서 ‘저무는 산’

*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겸임교수 / chyy60@hanmail.net

은 ‘저녁 산’으로 고쳐야 하며, 「花石亭」도 結句 ‘暮雲’을 ‘저무는 구름’으로 해석한 교과서는 ‘저녁 구름’으로 고쳐야 한다. 「送元二使安西」의 結句 ‘西出陽關無故人’에서 ‘陽關’은 국경 관문이며, 친구가 가는 곳이 안서이므로 ‘인제 양관에 가면’으로 誤譯한 교과서는 바로 고쳐야 한다.

이 밖에 한 교과서에 수록되었지만 誤譯이나 非文이거나 해석의 표현이 어색한 시는 張繼의 「風橋夜泊」, 宋時烈의 「金剛山」, 賈島의 「尋隱者不遇」, 韓龍雲의 「雪夜」, 鄭夢周의 「丹心歌」 등이다.

「風橋夜泊」의 起句 ‘달 기울고 까마귀 울어, 서리 기운 하늘에 가득한데’는 달이 기울고 까마귀가 울기 때문에 서리 기운이 하늘에 가득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 ‘달 지고 까마귀 울고, 서리 기운 하늘에 가득한데’로 고쳐야 한다. 「金剛山」의 轉句 ‘구름이 걷히고 산이 우뚝 서니’는 구름이 걷힌 후에 산이 우뚝 솟은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 ‘구름이 걷히자 산만 홀로 남았으니[서 있으니]’로 고쳐야 한다. 「尋隱者不遇」는 結句 ‘雲深不知處’를 ‘구름이 깊어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네.’로 해석하여 승구나 전구의 경어의 사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있는 곳을’을 ‘계신 곳을’로 고쳐야 한다. 「雪夜」는 起句 ‘四山圍獄’을 ‘사방의 산이 감옥을 둘러싸고’로 해석하였는데, 감옥이 사방의 산으로 막힌 곳에 있기 때문에 ‘사방의 산으로 둘러싸인 감옥에는’으로 고쳐야 한다. 「丹心歌」는 6구 ‘寧有改理也歟’를 ‘어찌 고쳐질 이치가 있겠는가?’로 해석했다.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다.’, ‘병 따위를 낫게 하다.’,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바로잡다.’, ‘모양이나 자세 따위를 바꾸다.’ 등의 의미일 때 쓰이는 단어이며, 이 시에서의 ‘改’는 變心의 의미이므로 ‘고쳐질’은 ‘바뀔’로 바꾸어야 한다.

한시의 誤譯을 지적한 것은 교과서 저자들에게 累를 끼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될 교과서에 誤譯이나 非文이 없는 완벽한 한문교과서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주제어】 漢詩 解釋, 誤譯, 非文, 誤謬 없는 漢文教科書

I. 序 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제작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내용 영역 중 한시 단원은 전체 단원의 10% 정도이다.¹⁾ 이 중 동일 작품의 한시인데도 해석은 교과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다. 교과서는 誤譯이나 非文으로 인한 誤謬가 없어야 한다. 고등학교 10종의 한문교과서 중 한시의 내용을 고찰해 보고 해석에 오류가 있는 한시를 지적해 본다.

교과서 한시분야에 대해서는 金相洪이 詩題와 出典에 대한 誤謬를 학회에 발표한 바 있지만 해석 부분의 언급은 미미하다. 한문을 해석함에 개인의 문집에서는 문구의 의미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텍스트로써 해석에도 오류가 없어야 한다. ‘不學’의 해석도 ‘배우지 않았다.’와 ‘배울 것이 없다.’로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듯이 詩語나 詩句를 해석할 때도 전체적인 의미에 맞게 해석해야 하며 非文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문법을 배운다.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학생이 誤譯이나 非文을 지적하여 질문을 하면 교사는 당황하게 되고 궁색한 답변을 찾는 실정이다.

교과서 한시 해석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은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될 교과서의 해석에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검토할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저자와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이하부터는 저자와 출판사를 아래의 기호를 사용한다. (출판사별 가나다순, 2009년도 발행본)

- A. 김경수·김성룡·김봉숙·김평호, 고등학교『한문』, (주)교학사.
- B. 최상익·이병혁·허남욱·이영우, 고등학교『한문』, (주)금성출판사.

1) 김상홍,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문제점」, 『한문교육연구』 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p.33.

- C. 신표섭·이병주·이윤찬·강경모·백광호·허시봉·류기영·이태희, 고등학교『한문』, 대학서림.
- D. 안재철·원용석·김동규, 고등학교『한문』, 대한교과서(주).
- E. 이명학·장호성·현상곤·임완혁, 고등학교『한문』, (주)두산.
- F. 유성준·김동환·유형규, 고등학교『한문』, 새한교과서(주).
- G. 이수철·곽치영, 고등학교『한문』, 정진출판사.
- H. 김상홍·최창구·이강렬·원창희, 고등학교『한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I. 박갑수·이상진·최상근, 고등학교『한문』, (주)지학사.
- J. 이희목·진재교·최돈욱·신영주, 고등학교『한문』, (주)천재교육.

2종 이상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는 다음과 같다. (수록이 많은 詩의 순)

作家名	詩題	教科書	비고
鄭知常	送人(大同江)	A, B, C, F, G, H, I, J	
蔡壽, 蔡無逸	祖孫問答	B, C, D, J, I	
鄭夢周	春興	A, B, G, H	
王維	送元二使安西	A, G, H, J	
玉峯李氏(李玉峯)	閨情	D, J	
	自述(夢魂)	B, C	
鄭道傳	訪金居士野居	A, C	
申師任堂	踰大關嶺望親庭 (泣別慈母)	B, H	
李珣	花石亭	F, I	
李白	山中答俗人	D, I	
杜甫	絕句	E, I	
杜甫	春夜喜雨	D,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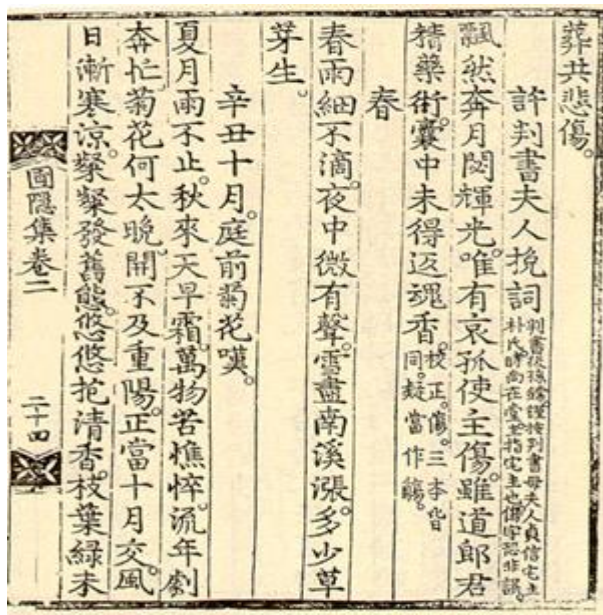
위 표에서 보듯 2종 이상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는 12편이다. 12편의 한시 가운데 鄭夢周의 「春興」, 鄭知常의 「送人(大同江)」, 申師任堂의 「踰大關嶺望親庭(泣別慈母)」, 李珣의 「花石亭」, 王維의 「送元二使安西」, 杜

甫의 「絶句」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 보고, 또한 한 출판사의 교과서에만 수록되었지만 해석에 오류인 부분을 살펴 지적해 본다.

II. 解釋에 差異를 보이는 漢詩

1. 圃隱 鄭夢周의 「春」

「春」은 고려 말 문신인 圃隱 鄭夢周(1337-1392)의 작품으로, 『圃隱集』 권2, 24면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春

春雨細不滴 夜中微有聲 雪盡南溪漲 多少草芽生

시상의 전개를 보면, 起句에서 낮에 내리는 봄비는 아주 고요하게 내리면서 아주 가늘고 가볍고, 마치 안개와 같다. 그래서 미처 빗방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承句에서는 밤이 되자 비로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微’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리가 크지는 않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귀 기울여야만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다.

轉句를 통해서 보면, 시인의 집 근처에는 시내가 있어 귀 기울여 들어보니 빗방울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 소리도 들리는 듯하다. 비로 인해 온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려 시내를 흐르며 내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結句의 의미는 기·승·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포근한 가랑비는 새 풀잎의 생명을 더해주고 있다.

훌륭한 시인은 시 속에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보여주지 않고 살짝 감추어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시를 읽은 다음에도 계속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교과서에 실린 동일 작품의 해석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4종의 교과서에 출전을 『圃隱集』이라 하고 詩題를 「春興」으로 잘못 표기한 것은 이미 김상홍이 지적하였다.²⁾

『圃隱集』 권2, 24면에는 위와 같이 결구가 ‘多少草芽生’인데, 『東文選』과 『大東詩選』에는 ‘草芽多少生’으로 되어 있어 순서가 바뀌었다. 출전을 바꾸든지 시구를 바로잡아야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한시의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2001. 8. 25. 전시본, 155면)

春雨細不滴 봄비 가늘어서 방울지지 못하는데,
夜中微有聲 밤중에 작은 소리가 들리네.

2) 김상홍, 위의 논문, pp.45-46.

雪盡南溪漲 눈 녹은 남쪽 시냇물 넘쳐흐르니
 草芽多少生 새싹은 조금 자랐겠구나.

• B교과서 (2009. 3. 1. 8쇄판, 91면)

春雨細不滴 봄비 가늘어 방울지지 않더니,
 夜中微有聲 밤 되니 빗소리 들린다.
 雪盡南溪漲 눈 녹아 남쪽 시내 불어나면
 草芽多少生 풀싹도 조금 돋아나겠지.

• G교과서 (2009. 3. 1. 5쇄판, 87면)

春雨細不滴 봄비가 가늘어 방울 지지도 않더니
 夜中微有聲 밤중이 되니 조그맣게 소리가 들리는구나.
 雪盡南溪漲 눈이 다 녹아 남쪽 시냇물이 불었을 테니
 草芽多少生 새싹은 얼마나 났을까?

• H교과서 (2009. 3. 1. 7쇄판, 258면)

春雨細不滴 봄비 가늘어서 방울지지 않더니,
 夜中微有聲 밤중에 어렴풋이 소리가 들리네.
 雪盡南溪漲 눈 녹아 남쪽 시냇물 불어나리니,
 草芽多少生 새싹이 얼마나 돌아났을까?

또 A교과서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119면)란에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다. 겨우내 쌓였던 눈이 따듯한 봄볕에 다 녹아 내리면, 그 눈 녹은 물이 시내로 흘러들어 물소리가 졸졸 들린다.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이슬비 소리인지 물소리인지 들릴 듯 말 듯한 봄의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 생명은 싹트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만물이 소생하는 분위기를 봄비에 새 생명이 움터 나오는 장면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B교과서는 해설과 감상(92면)에

봄비가 내린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라 소리도 내지 않는다. 밤이 되어 사방이

고요해지니 비로소 가늘게 소리가 들린다. 불현듯 봄이 온다는 생각이 든다. 비가 그치면 눈 녹아 흘러내리는 물로 남쪽 시냇물도 불어날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양지쪽 풀썩은 짙을 띄우겠지라는 상황이 그려진다. 봄을 맞이하는 감흥이 풀썩처럼 작자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다.

H교과서는 본문 이해와 길잡이(80면)에

정몽주(鄭夢周)의 <春興>은 봄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자연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애정과 설레는 감흥을 읊은 것이다. 봄비에 대해 綿綿히 흐르는 은밀한 정조를 두보의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起句와 承句의 해석은 대동소이하다. 반면 轉句의 ‘南溪漲’의 해석이 약간씩 다르다. A교과서는 ‘남쪽 시냇물 넘쳐흐르니’로, B교과서는 ‘남쪽 시내 불어나면’으로, G교과서는 ‘남쪽 시냇물이 불었을 테니’로, H교과서는 ‘남쪽 시냇물 불어나리니’로 해석했다. A교과서만 제외하고는 모두 ‘漲’을 가정 및 상상(불어나면, 불었을 테니, 불어나리니)으로 해석한데 반해, A교과서는 ‘넘쳐흐르니’로 해석했다. 그리고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도 ‘雪盡’의 의미가 ‘겨우내 쌓였던 눈이 따뜻한 봄볕에 다 녹아내리면’이라고 하여 눈이 녹는 것은 따뜻한 봄볕으로 보았다. 그래서 눈이 녹아 그 물이 시내에 흐르고 거기에 봄비까지 왔으니 ‘넘쳐흐르니’로 해석한 듯하다. 물론 따뜻한 봄볕이 눈을 녹여주겠고 ‘漲’이 ‘넘쳐흐르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응달이나 골짜기의 눈은 봄비에 녹는 경우가 많으며, 눈이 녹아 물이 흐르고 봄비까지 오더라도 겨우내 말라 있던 시내가 ‘넘쳐흐르다’는 해석은 지나친 것 같다. 결국 ‘多少’의 해석이 A교과서와 B교과서는 ‘조금’, ‘조금쯤’으로 해석했고, G교과서와 H교과서는 ‘얼마나’로 해석했다. ‘多少’의 사전적 풀이는 ‘분량이나 정도의 많음과 적음’, ‘작은 정도’, ‘어느 정도로’이다. 사전적 풀이에 맞추어 보면 네 출판사의 교과서 모두 이상이 없으며 孟浩然的「春曉」의 해석에 H교과서도 ‘多少’를 ‘얼마나’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모

두 원본의 ‘多少草芽生’을 ‘草芽多少生’으로 誤記했다. 이는 고쳐야 한다.

2. 鄭知常의 「送人」(「大同江」)

鄭知常의 「送人」(「大同江」)은 10종 한문 교과서 중 8종의 한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교과서 「送人」(교사용 지도서, 149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강둑 풀빛은 짙은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니 <u>슬픈 노래 떠오르네.</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언제 다 마를꼬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 해마다 <u>푸른 물결에 더하네.</u>

• B교과서 「送人」(95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둑에 풀빛 더욱 푸른데
送君南浦動悲歌	임 보내는 남포에는 <u>슬픈 노래 울린다.</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 언제나 마를까?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 해마다 <u>푸른 물결에 보태지는데</u>

• C교과서 「送人」(85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긴 언덕에 풀빛은 파릇파릇한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님을 보내노라니 <u>슬픈 노래 북받치네.</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다 마를까?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u>푸른 물결에 보태어지는 것을</u>

• F교과서 「送人」(241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긴 강둑엔 풀빛이 짙으니
送君南浦動悲歌	님 보내는 남포엔 <u>슬픈 노래 울리네.</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에 다 마를까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u>푸른 물결 위에 더해지는구나.</u>

• G교과서 「送人」 (91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그친 강가의 긴 독에는 풀잎이 싱싱한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님을 보내니 <u>슬픈 노래가 일렁이네.</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를까?
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u>푸른 물결에 보태는 것을.</u>

• H교과서 「大同江」 (258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짙은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 벗을 보내니 <u>슬픔이 북받쳐 노래하네.</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를 것인가?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u>푸른 물에 더해지더라.</u>

• I교과서 詩話」 (213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긴 강둑에 풀빛은 짙은데
送君南浦動悲歌	님보내는 남포에 <u>슬픈 노래 올리네.</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꼬?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u>보태져 물결을 이루는 것을</u>

• J교과서 大同江」 (254면)

雨歇長堤草色多	비 개인 긴 독에 풀빛이 짙어지니
送君南浦動悲歌	임을 떠나보내는 남포에 <u>슬픈 노래 이는구나.</u>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꼬?
別淚年年添綠波	이별 눈물 해마다 <u>푸른 물결에 더하네.</u>

위 해석을 보면 8종 교과서에 이별의 대상인 ‘君’에 대해 ‘임(님)’과 ‘벗’ 등으로 다르게 해석했다. 또한 승구에서 ‘動悲歌’의 해석이 보내는 자가 슬픔에 겨워 부르는 노래인지 자신의 마음이 슬퍼 외물의 소리도 슬프게 들리는 지로 나누어진다. C교과서 작품 감상의 길잡이³⁾에 ‘온갖

3) 신표섭·이병주·이윤찬·강경모·백광호·허시봉·류기영·이태희, 고등학교『한문』, 대학서림, p.85.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안타까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라고 한 점과, A교과서 작품의 이해와 감상 단⁴⁾에 ‘그저 슬픔에 겨운 노랫가락이 어디선가 흘러온다.’라고 한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는 ‘動悲[슬픔에 북받쳐] 歌[노래 부른다.]’로 보았는가와 ‘悲歌[슬픈 노래] 動[들려온다.]’으로 보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또한 결국 ‘添綠波’의 해석이 7종의 교과서에는 ‘푸른 물결에 보태지거나 더해진다.’라고 하였으며, I교과서에는 ‘보태져 물결을 이룬다.’고 하여 詩語 ‘綠’자를 생략하고 해석했다. 시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3. 申師任堂의 「踰大關嶺望親庭」(「泣別慈母」)

다음으로 신사임당이 친정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돌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정을 노래한 작품을 살펴본다. 詩題가 B교과서는 ‘泣別慈母’이며 H교과서는 ‘踰大關嶺望親庭’이다.

• B교과서 「泣別慈母 (99면)

慈親鶴髮在臨瀛	백발의 어머니 강릉에 계시운데
身向長安獨去情	이 몸 홀로 서울로 떠난다.
回首北村時一望	고개 돌려 고향마을 바라볼 제
白雲飛下暮山靑	흰구름 나는 아래 저무는 산만 푸르다.

운 심정을 절묘하게 捕捉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1, 2구를 보자. 비가 개인 강둑에서 님을 떠나 보내는데 풀빛은 더욱더 푸르고 온갖 슬픈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푸르름에 대비시켜 한층 더 서러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4) 김경수·김성룡·김봉숙·김평호, 고등학교『한문』, (주)교학사, p.113, “대동강의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는 곳. 그곳은 봄비에 풀들이 파랗게 물이 올라 초록색이 선명하다. 푸른 물결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고 거기에 임이 타고 있다. 임은 나더러 무어라 말할지, 나는 또 임에게 무어라 말할지. 그저 슬픔에 겨운 노랫가락이 어디선가 흘러온다……”

• H교과서 「踰大關嶺望親庭」 (258면)

慈親鶴髮在臨瀛	늙으신 어머니는 강릉에 계신데
身向長安獨去情	이 몸은 서울로 향해 홀로 가는 심정
回首北村時一望	고개 돌려 때때로 북촌을 바라보니
白雲飛下暮山靑	흰구름 이는 곳에서 <u>저녁 산</u> 이 푸르구나

위 해석을 보면, 起句의 ‘慈親’은 ‘어머니’로, ‘鶴髮’은 ‘백발’과 ‘늙다’로 해석했으며, 承句에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轉句에서는 아쉬움과 그리움에 고향을 뒤돌아보고 또 보는 모습으로 해석했다. 다만 ‘暮山’을 B교과서는 ‘저무는 산’으로, H교과서는 ‘저녁 산’으로 해석했다.

‘저물다’의 사전적 풀이는 ‘해가 저서 어두워지다.’, ‘계절이나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게 되다.’, ‘어떠한 일이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늦어지게 되다.’의 뜻으로 ‘산이 저물다’는 비문이다. 따라서 B교과서의 ‘저무는 산’은 ‘저녁 산’으로 해석해야 한다.

4. 李珣의 「花石亭」

李珣의 「花石亭」 해석에도 비문이 나타나 있다. F교과서와 I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해석은 다음과 같다.

• F교과서 (241면)

林亭秋已晚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가니
騷客意無窮	시인의 뜻은 다함이 없도다.
遠水連天碧	먼 곳의 물은 하늘과 닿아서 푸르고
霜楓向日紅	서리 맞은 단풍은 해를 향해 붉도다.
山吐孤輪月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江含萬里風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었도다.
塞鴻何處去	변방의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聲斷暮雲中	울음 소리는 <u>저무는 구름</u>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 I교과서 (213면)

林亭秋已晚 숲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騷客意無窮 시인의 생각은 끝이 없어라.
 遠水連天碧 먼 강물은 하늘에 잇닿아 푸르고
 霜楓向日紅 서리맞은 단풍은 햇빛 받아 붉구나.
 山吐孤輪月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토해내고
 江含萬里風 강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네.
 塞鴻何處去 변방의 기러기야 어디로 가느냐?
 聲斷暮雲中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8구의 ‘暮雲’을 F교과서는 시구풀이란(136면)에는 저녁 때의 구름으로 풀이했고, 본문풀이란(241면)에는 ‘저무는 구름’으로 해석했다. I교과서는 ‘저녁 구름’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F교과서의 ‘저무는 구름’은 ‘저녁 구름’으로 고쳐야 한다.

5. 王維의 「送元二使安西」

중국의 시 중 王維의 「送元二使安西」를 보면 10종 교과서 중 4종의 교과서에 소개되었다.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A교과서 (교사용지도서, 151면)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에 아침 비 내려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客舍青青柳色新 객사에 푸르고 푸르른 버들빛 새롭도다.
 勸君更盡一杯酒 그대에게 다시 한번 한잔의 술을 권하니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벗어나면 친구도 없으리니

• G교과서 (91면)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에 아침 비 가는 먼지를 적시고
 客舍青青柳色新 객사 앞 버들잎은 싱싱하기도 하다.
 勸君更進一杯酒 그대에게 다시 한 번 한잔 술 권하노니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도 없을 것을.

• H교과서 (87면)

渭城朝雨浥輕塵 위성 아침 오는 비 길 먼지를 적시네
 客舍青青柳色新 푸르도다. 여관 뜰 버들가지 빛이야
 勸君更盡一杯酒 다시 한 잔 술을 권하오니 다 마시게나
 西出陽關無故人 인제 양관에 가면 어느 친구 있으라

• J교과서 (254면)

渭城朝雨浥輕塵 위성의 아침 비 가벼운 먼지를 적시니
 客舍青青柳色新 여관 앞에는 파릇파릇 버들 빛이 새롭구나
 勸君更盡一杯酒 그대에게 다시 한 잔의 술을 권하오니 다 마시게나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도 없으리

위 시를 보면 ‘輕塵’과 ‘勸君更盡一杯酒’, ‘西出陽關’의 시구 해석에 문제가 있다. ‘輕塵’을 A교과서와 J교과서는 ‘가벼운 먼지’로, G교과서는 ‘가는 먼지’로 해석했으며, H교과서는 생략을 했다. ‘輕’자는 ‘가볍다’, ‘가벼이 여기다’, ‘가벼이 하다’, ‘가벼이’, ‘姓’ 등으로 해석한다. 반면 G교과서는 ①주요어구풀이 浥輕塵란에는 ‘(비가 내려) 가볍게 날리던 먼지를 적시니’라고 풀이하고 ②전문풀이에는 ‘가는 먼지’로 해석했다. 입자 크기로 보아 ‘微細한 먼지’ 정도로 생각하여 ‘가는 먼지’로 해석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輕’은 ‘重’의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대상이 고등학생인 만큼 글자 뜻대로 해석하여 ‘輕塵’은 ‘가벼운 먼지’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轉句의 ‘勸君更盡一杯酒’는 교과서에 따라 ‘盡’자를 ‘進’자로 오기했다가 김상홍의 지적으로 G교과서를 제외하고는 ‘盡’자로 고쳤지만 해석만은 고쳐지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結句의 ‘西出陽關’의 해석도 교과서에 따라 다르다. ‘陽關’은 전한시대의 關所로 지금의 국경에 있는 세관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다. 당시 서역으로 가려면 陽關이나 玉門關을 거쳐야 하는데 양관은 옥문관보다 70km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에서 安西는 지금의 신간성으로 이 작품이 씌어진 당

나라 때에는 안서 도호부를 두어 국경을 지키는 곳이며 양관은 국경관문으로 이곳을 거쳐야 안서로 갈 수 있다. 따라서 H교과서의 ‘인제 양관에 가면’은 誤譯으로 볼 수 있다.⁵⁾

Ⅲ. 其他 解釋에 誤謬가 있는 漢詩

다음으로 해석에 오류를 보인 한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張繼의 「楓橋夜泊」

張繼의 「楓橋夜泊」은 B교과서 명시감상란에 수록되었으며, 해석(96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달 기울고 까마귀 울어, 서리 기운 하늘에 가득한데,
江楓漁火對愁眠	강가의 단풍나무와 고기잡이 등불, 근심에 잠 못드는 나와 마주하였다.
姑蘇城外寒山寺	고소성 밖 한산사
夜半鐘聲到客船	한밤의 종소리 배에까지 울린다.

張繼는 中唐의 시인으로, 자는 懿孫이며, 湖北省 襄陽 사람이다. 玄宗 때 進士가 되었고, 檢校祠部員外郎과 洪州 鹽鐵判官 등의 벼슬을 지낸 사람으로 기행과 유람을 내용으로 하는 시를 많이 남겼다. 詩題 「楓橋夜泊」은 ‘풍교에서 밤에 배를 대다’라는 뜻으로, 배를 타고 가다 날이 저물어 풍교의 강가에 배를 대고 밤을 보내며 지은 시이다. 풍교는 江蘇省 蘇州의 서쪽 교외에 있는 다리를 가리킨다. 고소성은 蘇州에 있는 성이고, 한산사는 蘇州의 楓橋鎮에 있는 사찰이다. 달도 기울고 까마귀 울어

5) H교과서 저자의 한 분인 김상홍은 그의 논문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문제점」, 앞의 논문, p.42.에 “勸君更盡一杯酒 그대에게 다시 한 잔 술을 권하노니 다 마시게나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술 권하는)친구도 없으리니”로 해석했다.

대는 이른 새벽에 밤새 내린 서리는 스산함을 더하고, 배 안의 나그네는 강가의 단풍나무와 고기잡이 배들의 등불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데 멀리 한산사에서 친 종소리가 귓전까지 닿아 시름을 더한다. 객지에서 바라본 늦가을 밤의 정경과 나그네의 심정을 빼어나게 묘사한 시로, 청나라 康熙帝가 이 시에 끌려 풍교를 찾았다고 한다.⁶⁾

위 시를 보면 起句의 ‘月落烏啼霜滿天’을 ‘달 기울고 까마귀 울어, 서리 기운 하늘에 가득한데’로 해석했다. ‘月落烏啼霜滿天’은 이른 새벽의 스산함을 나타내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한 시구이다. ‘달 기울고 까마귀 울어, 서리 기운 하늘에 가득한데’의 해석은 달이 기울고 까마귀가 울기 때문에 서리 기운이 가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起句는 ‘달 지고 까마귀 울고, 서리 기운 하늘에 가득한데’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承句의 ‘江楓漁火對愁眠’을 ‘강가의 단풍나무와 고기잡이 등불, 근심에 잠 못드는 나와 마주하였다.’로 해석했다. ‘愁眠’은 시름 속에 줄거나 걱정하면서 잠을 자는 것을 말한다. 承句를 詩語대로 해석하면 ‘강가 단풍나무, 고깃배 등불 마주하고 시름 속에 줄고 있네.’이다.

2. 宋時烈的 「金剛山」

宋時烈的 「金剛山」은 F교과서에 수록 되어 있다. 해석(240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山與雲俱白	산과 구름이 모두 희니
雲山不辨容	구름과 산의 모습을 구별하기 어려워라.
雲歸山獨立	<u>구름이 걷히고 산이 우뚝 서니</u>
一萬二千峯	일만 이천 봉이라

위 해석에서 轉句 ‘雲歸山獨立’을 ‘구름이 걷히고 산이 우뚝 서니’로

6)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해석하여 구름이 걷힌 다음 산이 우뚝 선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시는 흰 구름이 가득 찬 금강산의 산봉우리가 구름이 걷힌 후 산봉우리만 남아 있어 그 숫자가 일만 이천 봉이라는 내용이다. 轉句는 시구대로 풀이하여 ‘구름이 걷히자 산만 홀로 남으니[서 있으니]’로 해석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다.

3. 賈島의 「尋隱者不遇」

賈島의 「尋隱者不遇」는 F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해석(240-241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松下問童子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으니
言師採藥去	스승은 약초 캐러 <u>가셨다</u> 고 대답한다.
只在此山中	다만 이 산 속에 <u>계시나</u>
雲深不知處	구름이 깊어 <u>있는 곳을</u> 모른다고 하네.

이 시의 해석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雲深不知處’의 해석 ‘구름이 깊어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네.’이다. 이 시는 객과 동자의 대화로 구성되었다. 동자는 스승에 대한 경어를 써서 ‘가셨다.’, ‘계시나’ 등으로 표현했으나 결국에는 ‘있는 곳을’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해석에 경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계신 곳을’로 해석해야 한다.

4. 韓龍雲의 「雪夜」

韓龍雲의 「雪夜」는 J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해석(255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四山圍獄雪如海	<u>사방의 산이 감옥을 둘러싸고</u> 눈이 바다와도 같은데
衾寒如鐵夢如灰	이불은 쇳덩이처럼 차고 꿈도 재와 같구나

鐵窓猶有鎖不得 철창으로도 오히려 잠글 수 없으니
夜聞鐘聲何處來 밤에 들리는 종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위 시의 해석에 문제가 되는 것은 起句의 ‘四山圍獄’이다. 위의 해석대로 ‘사방의 산이 감옥을 둘러싸고’는 감옥이 먼저 세워진 후에 사방으로 산이 생겨나 그 감옥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감옥은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은 곳이나 탈옥을 막기 위한 장소에 위치한다. 위에서도 감옥이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했다. 따라서 ‘四山圍獄’은 ‘사방의 산으로 둘러싸인 감옥에는’으로 해석해야 한다.

5. 鄭夢周의 「丹心歌」

鄭夢周의 「丹心歌」는 D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해석(101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此身死了死了 이 몸이 죽고 죽어
一白番更死了 일백 번 고쳐 죽어
白骨爲塵土 백골이 먼지나 흙이 되어
魂魄有也無 혼백이 있거나 없거나
向主一片丹心 주인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寧有改理也歟 어찌 고쳐질 이치가 있겠는가?

위 시 結句 ‘寧有改理也歟’의 ‘改’는 ‘고치다’, ‘고쳐지다’, ‘바꾸다’, ‘바뀌다’, ‘만들다’, ‘다시 따로’, ‘새삼스럽게’ 등의 의미로 쓰인다. ‘고치다’는 ‘고장이 나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제대로 되게 하다’의 의미로 ‘목수가 삐걱거리는 마루를 고쳤다’, ‘고장난 시계를 고치다’, ‘버릇을 고치다’ 등으로 활용된다. ‘바꾸다’는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거나 대신하게 하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옮기다’ 등의 의미이다. 위 시의 轉句는 주인을 향한 일편단심이 바뀌지 [變心] 않는다는 의미로, ‘고쳐질’의 해석은 ‘바뀔’로 고쳐야 한다.

IV. 結 語

지금까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고등학교『漢文』교과서의 내용 중 한시 영역의 해석을 살펴보았다.

2종 이상의 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12편이지만 이 중 鄭夢周의 「春興」, 鄭知常의 「送人」, 申師任堂의 「踰大關嶺望親庭」, 李珣의 「花石亭」, 王維의 「送元二使安西」 등의 해석을 비교해 보고 오류가 있는 교과서를 지적했다.

이 밖에 한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는 張繼의 「風橋夜泊」, 宋時烈의 「金剛山」, 賈島의 「尋隱者不遇」, 韓龍雲의 「雪夜」, 鄭夢周의 「丹心歌」 등에 오역이나 비문인 부분을 지적했다. 같은 詩題의 해석에도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문인 문장도 있었다.

필자가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학생들이 시 뿐만 아니라 산문이나 단문에도 표현이 어색하거나 非文이거나 誤譯을 지적하여 질문할 때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게 된다.

한문 교과서에 소개된 해석은 ‘한문해석’의 기초가 되며 모범답안이 되기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해석의 오류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주어 한문수업에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다. 또한 한번 제작된 교과서가 10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볼 때, 해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시의 誤譯을 지적한 것은 교과서 저자들에게 累를 끼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개정 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될 교과서에 誤譯이나 非文이 없는 완벽한 한문교과서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參考 文獻>

- 鄭夢周, 『圃隱集』, 『韓國文集叢刊』 5, 한국고전번역원(www. itkc. or. kr).
- 田鶴洙, 『漢詩語辭典』, 국학자료원, 2002.
- 김경수 · 김성룡 · 김봉숙 · 김평호, 고등학교『한문』, (주)교학사, 2009.
- 김상홍 · 최창구 · 이강렬 · 원창희, 고등학교『한문』,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9.
- 박갑수 · 이상진 · 최상근, 고등학교『한문』, (주)지학사, 2009.
- 신표섭 · 이병주 · 이운찬 · 강경모 · 백광호 · 허시봉 · 류기영 · 이태희, 고등학교『한문』, 대학서림, 2009.
- 안재철 · 원용석 · 김동규, 고등학교『한문』, 대한교과서(주), 2009.
- 유성준 · 김동환 · 유형규, 고등학교『한문』, 새한교과서(주), 2009.
- 이명학 · 장호성 · 현상곤 · 임완혁, 고등학교『한문』, (주)두산, 2009.
- 이수철 · 곽치영, 고등학교『한문』, 정진출판사, 2009.
- 이희목 · 진재교 · 최돈욱 · 신영주, 고등학교『한문』, (주)천재교육, 2009.
- 최상익 · 이병혁 · 허남욱 · 이영우, 고등학교『한문』, (주)금성출판사, 2009.
- 김상홍,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의 문제점」, 『한문교육연구』 2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 네이버 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n translation of Chinese poetry - Focused on Chinese
Writing textbooks in highschool / Choi Yun Yong**

The range of Chinese poetry in Chinese Writing textbooks of highschool is approximately 10%, and there are 12 pieces of these in more than two kind of textbooks.

In course of translation, there are some mistranslation and errors of the 12 pieces of Chinese poetry such as 鄭夢周's 「春」, 鄭知常's 「送人」, 申師任堂's 「踰大關嶺望親庭」, 李珣's 「花石亭」, and 王維's 「送元二使安西」.

In case of 「春」, the poetic word order of the concluding part is different from that of 『圃隱集』, which reads as follows : 多少草芽生. And in case of 「送人」, '君' of 起句 is explained '임(님)' or '벗', and elucidation of '動悲歌' of 承句 divided into 'be seized with laments[動悲] and sing a song[歌].' and 'be heard[動] sorrowful song[悲歌].' In case of 「踰大關嶺望親庭」, '暮山' of 結句 explained 'mountain of drawing to a close', so '暮山' of 結句 should be fixed to 'evening mountain' from 'mountain of drawing to a close', because 'drawing to a close' means 'It is getting dark why sun closes.' or 'Some tasks are delayed to when the day closed.' or 'Season or a year is passing.'. Moreover, in case of 「花石亭」, '暮雲' of 結句 should be fixed to 'evening cloud' by interpreting of 'cloud of drawing to a close'. In case of 「送元二使安西」, some textbooks which have errors in translation, 'going to 陽關 now', should be fixed, because '陽關' of '西出陽關無故人' of 結句 means a boundary gate of the border of a country, and 安西 is to where friend will go.

1. Moreover, these are poetries that have errors in translation, wrong sentences

* Adjunct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chyy60@hanmail.net

unnatural expressions putting in one textbook; 張繼's 「風橋夜泊」, 宋時烈's 「金剛山」, 賈島's 「尋隱者不遇」, 許楚姬's 「採蓮曲」, 韓龍雲's 「雪夜」, and 鄭夢周's 「丹心歌」.

「風橋夜泊」 should be fixed to 'the moon is sinking, the crow is crying, and it is filled with frost in the sky' from 'it is filled with frost in the sky because of sinking moon and a crying crow' of 起句, because we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ason of being filled with frost in the sky is sinking moon and a crying crow. 「金剛山」 should be fixed to 'The mountain stands alone when the cloud is dispelled' from 'The cloud is dispelled, and the mountain rises high' of 轉句. 「尋隱者不遇」 doesn't be used corresponding respect languages. 「雪夜」 should be fixed to 'In the prison being enclosed by mountains of all direction' from 'The mountains of all direction enclose the prison' of 起句. In case of 「丹心歌」, '寧有改理也歟' of 6句 is translated 'How is it going to be fixed?'. 'fix' means 'Some objects which are broken or cannot be used be fixed.', 'Some diseases are cured.', 'correct one's faults or wrong things.' or 'change the shapes or the postures.'. So 'be going to be fixed' should be fixed to 'will change' because '改' means 變心.

Pointing out mistranslation of chinese poetries is not bring trouble to authors of textbooks but looking forward to appear the perfect textbook by being published by revised Chinese education curriculum which will not have any mistranslation and wrong sentences.

【Key words】 translation of chinese poetries, errors in translation, wrong sentences, the perfect textbook Chinese Writing textbooks

투고일 : 4월 27일, 심사일 : 5월 20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
